

3학년	Lesson 6	6과 More Reading ③ How stories shape our minds	Class No.	Name	해석
Date	.. .				
1	How stories shape our minds I The science of storytelling There's a Native American proverb that says, "The one who tells the story rules the world." Stories have the potential to be incredibly powerful. 어떻게 이야기가 형성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스토리텔링의 과학 미국인디언들의 속담이 있다, " 이야기를 말하는 자가 지배한다 세상을." /이야기는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 아주 놀라울만큼 강력한				
2	They're able to change how we relate to each other, to change prejudice , so the potential for stories to persuade is staggering. 이야기들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 관계를 맺는지, /(이야기는) 편견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의 잠재력/ 남을 설득하는/ 엄청나다.				
3	I read this really, really good research paper about these two books which basically suggested, that if you get people to read a couple of chapters of Harry Potter, they'll rate themselves higher than other people in their ability to potentially move something, just using the power of their mind. 나는 읽었다 이 아주 아주 멋진 연구논문을/ 이 두 책에 관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암시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한다면/ 몇 개 챕터를 /해리포터의/ 그들은 등급을 매긴다 스스로를/ 더 높게 다른 사람보다 / 능력치에서 / 잠재적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 단지 정신력을 사용해서.				
4	The people who read about the vampires, they'll actually believe that their teeth are slightly longer than other people in the population , just as a result of having read a chapter or two of this book. 사람들/ 뱀파이어에 관한 책을 읽은,/ 그들은 사실 믿을 것이다/ 그들의 이빨이 약간 더 길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속한) 인구에서, / 단지 결과로/ 이 책의 한 두 챕터를 읽은				
5	Psychologists call this ' assimilation ' – where the reader takes on the qualities of a fictional group. In terms of psychology , there's a few things that stories actually do to us: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동화'라 부른다 – 독자가 취득한다 그 자질을 소설속 인물의. 심리학용어로, 몇 가지가 있다/ 이야기들이 실제로 하는 우리에게 하는 :				
6	1. Transportation : when the reader loses themselves in the story world. We get this sense that we're fully immersed in the world that we're reading about. 1. 이동 : 독자가 자신을 잃어버릴 때/ 이야기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느낌을 얻는다/ 우리가 완전히 몰입되었다고/ 그 세계에/ 우리가 읽고 있는				
7	2. Identification : where a reader takes on the perspective and identity of a story character. We start to almost feel as if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to them, are happening to us. Research suggests that transportation and identification may be related to the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2. 동일시: 독자가 얻을 때/ 관점과 자아정체감을/ 이야기속 등장인물의. 우리는 느끼기 시작한다/ 마치 그 등장인물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듯이				
8	Reading is not a relaxation , you are building worlds, you are populating those worlds with cities and those cities you are populating with people. 독사는 휴식(이완되는 활동)이 아니다, 당신은 건설하는 중이다 세상들을, 당신은 채우고 있다 그 세상을 도시들로, 그리고 그 도시들을 사람들로.				
9	So although television, film, theater all have their place in the storytelling world, to me that moment of contact with a book, when you read a story and unlock its secrets... nothing quite comes close. 그래서 비록 텔레비전, 영화, 극장(연극) 모든 것이 그들의 자리메김을 하더라도/ 스토리텔링 세상에, 나에게 책하고 연결되는 순간, 이야기를 읽어서 비밀을 알아내는 순간.... 어떤 것도 그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10	But what is actually happening in our brains? Neuro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are looking at specific parts of the brain when we read. 그런데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의 뇌에서? 신경과학자들은/ 캠브리지대학교의/ 보고 있다/ 특정한 부분을 우리뇌의 / 우리가 독서를 할 때.				

	<p>Our research has been on the meaning of individual words, if you read the word "jump" for example, you activate those areas that you also activate when you do actually perform the action of jumping.</p>
11	<p>우리의 연구는 개별 단어들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점프"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부분/ 여러분이 역시나 활성화 시킬/ 여러분이 실제로 점핑이라는 액션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점프"라는 단어를 읽을 때와 실제로 점핑이라는 액션을 수행할 때 활성화 시킬 뇌의 특정부위가 같다.)</p>
12	<p>The interesting question in this case of course is, if you read about somebody else jumping, why should you activate brain areas related to jumping?</p>
13	<p>흥미로운 질문은/ 이 경우 물론/ 이다,/ 만약 여러분이 읽는다면/ 점핑하는 누군가에 대해, 왜 여러분은 활성화시켜야 하는 걸까요/ 실제 점핑하는 행동과 연관된 뇌의 부분들을/ (이 경우 물론 흥미로운 질문은 '우리가 점핑하는 누군가에 대해 읽을 때 왜 우리가 실제 점핑하는 행동을 할 때 활성화하는 부분을 왜 꼭 활성화시켜야 하는 걸까요' 이다)</p>
14	<p>One theory is to do with mirror neurons. These are neurons that are triggered inside our brains when we watch the actions of others.</p>
15	<p>한 이론은 거울 뉴런과 관련을 짓고 있다. 이것들은 신경세포이다/ 자극되는/ 우리 뇌안에서/ 우리가 볼 때 /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p>
16	<p>Some scientists think mirror neurons help create empathy and that might also be what's happening when we read.</p>
17	<p>어떤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거울 뉴런이 돋는다고/ 만들어 내는 데/ 공감능력을 / 그리고 그 현상이 또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독서를 할 때도.</p>
18	<p>The proponents of the theory would say that immersing yourself into a story is based on the mirror neuron system.</p>
19	<p>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말한다/ 몰입시키는 것은/ 이야기속으로/ 근간을 두고 있다/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에</p>
20	<p>We might feel sadness when we read about someone who is sad, or smile when we read about people who are happy.</p>
21	<p>우리는 아마 슬픔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읽을 때 슬픈 사람에 대해, 또는 미소지를 것이다/ 우리가 읽을 때 행복한 사람에 대해 읽을 때</p>
22	<p>I am convinced that mirror neurons are part of this process, but it can't be the whole story.</p>
23	<p>나는 확신한다/ 거울 뉴런은 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전체 과정일 수는 없다.</p>
24	<p>It's been found that, when we connect with people who aren't real but are fictional characters, it forms a sort of social surrogate for us - it's almost like they're a real person when they're not. And psychologists sometimes call it forming a parasocial relationship.</p>
25	<p>발견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연결될 때 사람들과 / 실존하지 않는/ 그러나 이야기속의 인물들과 같은/ 그 것은 형성한다/ 일종의 사회적인 대용품을 우리를 위해- 그들이 진짜 사람인 것과 아주 비슷하다/ 비록 실제가 아니지만.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때때로 부른다 그걸/ 준사회적 관계 형성이라고.</p>
26	<p>(우리가 이야기속 인물과 같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마치 실제 사람인 것처럼. 심리학자들은 이걸 '준사회적 관계 형성'이라고 부른다.)</p>
27	<p>And what's interesting about that is it kind of makes us feel less lonely and it can also buffer self-esteem and improve our mood.</p>
28	<p>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과 관련해/ 이다/ 그것은 일종에 만든다/ 우리가 느끼도록 /덜 외롭게/ 그리고 그것은 또한 강화시킨다/ 자아존중감을 그리고 향상시킨다/ 우리의 기분을.</p>
29	<p>We know that having a lot of friendships with other people is a really positive thing. But what's really interesting is they don't have to be real people.</p>
30	<p>우리는 안다/ 가지는 것이/ 많은 우정을 다른 사람들과/진짜 긍정적인 것이라고. 그러나 진짜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실제 인물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p>